

STO 법안 재발의… 블록체인 기반 신시장 선점 나선다

증권업계, 토큰증권 활성화 대비 ‘프로젝트 펄스’ 원스톱 서비스 제공
미술품 조각투자·MTS 거래 탭 신설
위킹그룹 발족으로 실무 준비 박차
STO 컨소시엄 ‘ST프렌즈’ 결성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면서 증권업계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다만 여러 번의 시도와 폐기를 거친 사례들이 있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일단 지켜보며 물밑에서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을 비롯해 블록체인 글로벌, 법무법인 광장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지난 11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서비스 ‘프로젝트 펄스’의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가동에 나섰다. 펄스는 금융 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서울 여의도 금융가.

/뉴시스

위해 탄생한 협력 프로젝트이다. 조각투자 사업자와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에게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인프라와 금융·법률솔루션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증권은 STO 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STO 법제

화가 통과될 경우 첫 조각투자 거래 상품으로 미술품을 선정하고 MTS 내 STO 거래 탭을 신설해 조각투자 거래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부터 위킹그룹을 발족, STO 관련 실무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펌크·토스뱅크등과 함께 한국투자ST프렌즈

를 결성했다. 이밖에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역시 ‘ST 증권사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으로 부동산·미술품과 같은 실물 자산을 잘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반 토큰과 연계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법적 규제가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법안을 재발의해 추진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 토큰증권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무위 소속 김제섭 국민의힘 의원은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으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의견과 지난 2023년 11월 해당 법안 관

련 정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의견을 담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신설되는 제166조 제3항의 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한 인가 업무 단위에 대하여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조항을 신설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법안을 재발의했다는 점에서 토큰증권 제도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빠른 시일 내 토큰증권 시장 개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들의 인프라 구축이 과제인데 아직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자체 토큰증권 인프라를 갖추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증권사들은 관련 업체들과 STO 사업 관련 협업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는 만큼 단기간 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中 증시 반등에도 ‘중학개미 이탈’… 美·中 갈등 변수

CSI300 상승세, 개인 투자자 냉랭
중 정부 부양책, 기대 못 미친 효과

중국 증시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학개미(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11월 1일~18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중화권 증시(상해홍콩증시, 심천홍콩증시, (R)QFII, 중국B주)의 합산 보관금액은 약 8억7766만 달러(1조2214억원)으로 연초(1월 1일~18일 기준) 약 9억5167만 달러(1조3241억원) 대비 8% 가량 감소했다.

이중 상해홍콩증시 투자보관금은 같은 기간 약 11.18% 줄어든 모습을 나타냈다.

중국 정부는 증시 부양을 위해 9월 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증시 반등을 유도했다. 증시 부양책이 발표되자 3108.35(52주 최저)를 기록했던 중국의 CSI300지수도 지난달 8일 4256.10을 기록하며 약 36.9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CSI300 지수는 중국 증시의 대표 지수로,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300개 기업의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다. 해당 지수는 20일에는 소폭 하락했지만 3986.82로 장을 마감했다.

하지만 국내 중학개미들은 이러한 중

국 증시의 상승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미·중 갈등 우려가 고조되고, 부양책에도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폐막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제12차 상무위원회 회의 후에 발표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은 고질적인 지방정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간 10조위안(약 1937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특별국채 및 지방특별채 발행 내용 없이, 지방정부 부채 해소 계획만 담겨 시장에 실망

감을 안겼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불안감도 중학개미들의 탈출러시를 부추기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에는 중국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부양 조치가 이어지겠지만 강력한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 어렵고,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부양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허정윤 기자 zekova@



한국거래소가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진행되는 ‘FIA 선물·옵션 엑스포’에 참가했다.

/한국거래소

거래소 미국 시카고서 ‘세일즈’ 파생상품 마케팅 펼쳐

한국거래소가 지난 19일부터 2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FIA 선물·옵션 엑스포’에 참가한다. 행사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에게 KRX 파생상품시장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거래소는 이번 행사에서 홍보부스 운영 및 일대일 세일즈 활동을 통해 국내 파생상품시장 인지도 제고 및 수요기반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코리아 밸류업 지수 선물’ 등 신상품 및 2025년 중 도입 예정인 자체 야간시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일 기간 내 해외거래소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 나선다. 더불어 현지 기관투자자와의 미팅을 통해 주요 추진사업 홍보 및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거래소 측은 “이번 엑스포 참가 결과를 토대로 거래환경 선진화와 파생상품 라인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2025년 FIA 부산 포럼’ 등 국제행사 개최 및 참여를 통해 국내 파생시장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비상장 주식 매각 시, 회사에 고지 필수” 한투, ‘절세3종 계좌’ ETF 투자 이벤트

금감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여부’

#. 비상장회사 A의 주주인 B씨는 A사의 주식을 다른 투자자 55명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A사에 알리지 않았다. A사는 매출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증권(매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A사는 B씨의 매출로 간주모집 규제를 적용 받게 돼 그 후 추가로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 전매제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증권을 50인 미만으로 발행하는 경우인 사모 발행으로 오인해 69억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간주 모집 규제를 2회 위반했다. 이에 회사 A사는 과징금 9000만원, B씨는 과징금 214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비상장회사 증권매출과 관련해 회사와 주주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기존에 발행된 증권이 주주에 의해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에 해당하게 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생기는데, 회사가 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매출 당사자인 주주도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과거에 모집이나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라도 모집으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생기고, 모집·매출(10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정기 공시 의무가 생기게 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비상장주식을 양수한 투자자는 해당 주식 양수가 매출에 해당함에도 증권신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 이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 또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누락에 대해 회사나 매출인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발행인은 신규주식 발행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함으로써 기존 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kova@

IRP·중개형 ISA·개인연금 계좌 대상

한국투자증권이 내년 1월 31일까지 뱅키스(한국투자증권 온라인 전용 계좌 및 거래 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ETF(상장지수펀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20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이른바 ‘절세 계좌’로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개형 ISA, 개인연금 계좌를 통해 한국투자신탁운용을 비롯한, 삼성, 미래에셋, KB, 한화 등 5개 운용사의 ETF에 투자하면 순매수금액에 따라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참가 조건은 운용사별로 상이하며, 여러 운용사 ETF를 동시에 매수할 경우 운용사별 최대 5만원까지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적립식 자동매수 이벤트도 진행된다. 적립식 자동매수는 주식이나 ETF 등을 사전에 정해둔 날짜와 금액에 맞게 매달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ETF에 투자하면



뱅크스 절세 3종 운용사 ETF 이벤트. /한국투자증권

실제 주문 체결 횟수에 따라 커피쿠폰을 최대 2장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상기 이벤트는 동시 참여가 가능하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 전원에게 경품을 지급하며, 이외 다른 운용사는 사전에 고지된 선착순 인원을 추첨해 경품을 지급한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별도의 참가 신청이 필요하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한국투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zekova@